

지 상 범 석

# 생활속 방생입니다”

## 남위해 베푸는 모든 일이 방생이고 나위해 수행정진하는 것도 방생

탈을 벗고 좋은 세상으로 환생하라"고 축원 한마디 해 주는 것이 더 바른 방생일 것입니다. 방생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무조건적 방생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수행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방생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욕도를 윤회하는 자신의 업장으로 부터 스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승자백(自稱自縛)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윤회의 굴레에서 수많은 업을 지으며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얽어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고의 사슬은 길기만 한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이 중생의 사슬을 벗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슬을 벗는 일은 하루이틀에 될 수 있

사람의 눈에는 흉한 세상만 나타납니다. 여기에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이 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생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 자신을 방생하는 것과 다른 생명을 놓아 주는 일을 따로 두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번뇌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떤 생명을 편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가 혜가에 "그 마음을 가져 오너라"라고 함으로써 제자의 눈을 번쩍 뜨게 했던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편안하게 구축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방생의 실천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보고 거북하거나 짜증스럽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상 그 자체가 우리를

를 방생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단한 자기수행과 서원 그리고 조건 없는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방생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너무나 많습니니다. 그 그늘 속에서는 반드시 가난과 질병과 범죄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낸 불자들의 손길은 그런 독초를 제거하는데 모아야 합니다.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의 손과 눈을 이 사회의 그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스스로 죄업의 사슬을 푸는 수행이 필요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것이 나중이란 분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살심을 내는 것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넓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들은 해질녘의 산그림자처럼 넓어지고 범죄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인줄 알지만 이미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사회가 지옥으로 변해 버리는 이유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사는 곳이 지옥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마음을 닦는데서 시작됩니다. 티끌이 가득한 마음은 지옥을 지을 뿐이니 스스로 짓는 윤회의 사슬을 어느 세월에 벗어던질단 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 수행정진 하는 것은 마음의 티끌을 닦아내고 청정한 법계를 짓는 일임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고통의 근원을 모른채 무심히 살아가는 것은 축생미물의 윤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 자신의 실상과 생노병사의 고통이 왜 오는 것인지를 알고 거기가 벗어나고자 수행정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생을 받아 불법에 귀의 한 것도 무수한 전생의 선행이 있어서 가능 한 것입니다. 다음생에서는 한 걸음 더 해탈로 나아간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 보살심 서원 '자기 방생' 먼저하면 사회방생 저절로 "내가 번뇌 묶여 있으면 어떤 생명도 구제 못해요"

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수행과 선업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이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돌로 갈라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웃(중생)의 고통을 돌보는 큰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그 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큰 마음을 내기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니까,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사슬을 풀어내는 지혜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그 어려운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갖길 서원 하면 됩니다. 서원하는 그 순간 이미 보살의 마음을 갖춰집니다. 얼마나 착실히 유지하고 쓰느냐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모두 어여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갖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어여씨 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세상이 보이고 흉하게 보는

편하게 해 주는 것은 그분은 이미 생노병사의 굴레를 다 뛰어 넘으신 대가의 상을 스스로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며 좋은 낫발을 하는 것도 이미 중요한 방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 웃음 띤 표정 하나가 다 방생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순간이 다 방생의 과정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웃이 있고 일체 만물이 있습니다. 나의 한 동작이 죄악이면 법계가 죄에 휩싸이고 나의 말 한마디가 선하면 법계가 착해집니다. 나는 법계의 모습이고 법계는 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방생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듯 방생은 실천인 것입니다.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웃음 띤 얼굴을 갖는 방생에서 고통속의 이웃을 돌보는 방생에 이르기까지의 작고 큰 방생을 생활화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대로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실천력이 없는 방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조건을 따지는 방생만 하는 사회는 오히려 지옥도에 죄악을 덧칠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방생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이제 불자들은 사회

보살심을 낸 불자 오백 명이 모이면 그대로 천수천안이 아닙니까. 관세음보살님은 하늘에 있지 않고 지장보살님은 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내면 그대로 관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인데 그래서 이 수행을 행하면 이곳이 불국토인데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방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입니다. 해탈은 자유이고 무애자재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회를 방생하는 일을 멈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슬을 푸는 것도 사회를 향해 방생의 실천을 쉬지 않는 것도 다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탈을 향해 정진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해탈의 길을 열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해탈한다는 것은 온 법계가 해탈한다는 것이니 그 자리아말로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국토는 커녕 지옥문을

“나의말 한마디가 선하면  
법계가 착해 집니다  
나는 법계의 모습이고  
법계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며 얼마나 많이 닦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으며 이웃의 사슬을 풀어 주는 보살행을 한시도 쉬지 마십시오.

방생은 보살행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해탈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방생법회에 참가 하는 것만 방생이 아닙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이 방생이고 나를 위해 수행하는 일도 방생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방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일체 중생의 위대한 해탈을 향한 방생의 원력을 굳게 세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 갑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6**

**김성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23**

지금까지 현대물리학의 근본이 되는 양자역학적 물질관에 덧붙여 우주·물질에 대한 물리학의 또다른 관점인 상대성이론의 일부분을 설명하였다. 경전이 설하는 무색 무수상행식에 대해 상대성이론은 색과 아(我)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리학은 수상행식의 주체인 아(我)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가 보는 색이 아를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색을 보는 아도 결국 하나의 집착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색(色)이란 결국 아(我)가 만들어 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가 운동하고 변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현상을 실체가 아닌 신기루같은 사실은 실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에서 물체의 높이를 바꾸어 주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실체가 갖는 위치에너지가 적으며 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보다 많은 위치에너지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도 위치에너지를 실체인 물체의 위치가 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일 뿐 실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일상경험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대로 물질을 실체라고 하는한 에너지는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성질을 연구한 결과 에너지가 물질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바로 E=mc<sup>2</sup>은 상대성이론에서 유도한 것이다.

현상에 따른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와 실체라고 생각해 오던 물질이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상대성이론이 말해주고 있으며, 이 사실은 실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실(實)과 허(虛)**

‘물질-에너지’ 같은 성질이나 표현 달라  
분별지로 판단한 것은 ‘我’의 고집일뿐

다. 과연 실체와 현상은 실(實)과 허(虛)일까? 상대성이론은 허와 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sup>2</sup>이 바로 허즉실이요 실즉허를 뜻한다.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자.

E=mc<sup>2</sup>은 질량이 있는 입자가 사라지는 대신 에너지가 생겨나고 에너지가 변하여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아니 그것보다 모두 질량을 가진 입자가 에너지의 특수한 형태임을 뜻한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다. 물체가 운동하면 거기엔 운동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뿐이다. 질량을 가진 물체를 실체라고 할 때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보다 많은 운동에너지를 갖는다고 느끼게 움직이면 보다 적은 운동에너지를 갖는다고 느끼게 움직이면 느리게 움직이든 실체에 무슨 변동이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저 운동상태가 바뀌었다고 말할 뿐이다. 즉 실체가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란 단순히 현상이 바뀌는 정도에 대한 척도일 뿐이다. 또한 지상

없이 정확히 검증된다. 우리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허와 실로 나눈 것이 '아(我)'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법이 없고 다 옳다는 것이 상대성이론이 뜻하는 내용이다.

사람이 오관으로 보고 느끼며 분별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아'의 고집에 불과한 것이다. 한꺼풀 벗기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한꺼풀 벗기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난다. 반아심경은 사리불에게 이것을 가르키는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네 고집에 불과할 뿐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은 내가 오관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다고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는 주와 객을 초월하여 반아지로 비출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심경이 설하는 것이다.

물리학은 반아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으나 분별지로 판단한 본 결과는, 적어도 분별지 내에서는 심경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화대 교수·물리학과)

## 진 옥 (眞玉) 부처님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자랑스런 수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성한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대에 맞는 문화재를 창출하여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자부심도 필요하리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옥불을 조성하여 20세기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재가 되도록 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상필** 合掌

옥불조성전문업체

**金剛玉佛株式會社**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번지

☎ (051)802-4696~7 FAX (051)802-4698

옥불의 가격은 일반동의 가격과 별차이 없으며 저렴하게 모실수 있습니다.